

# Reinhard Wilhelm

CAPSULE INTRODUCTION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작계는 이동전화기에서부터 크계는 자동차, 비행기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기능적인 올바름 이외에도 시간적인 올바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걸려오는 전화를 가끔씩 이동전화기가 시간적 제약을 맞추지 못하여 이용자가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불편함을 겪게 되겠는가? 이동전화기에서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문제가 끝나지만 착륙하는 비행기의 랜딩 기어가 제때에 펴지지 않거나 자동차에서 ABS 브레이크가 제때에 동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괴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이번 Distinguished lecture의 연사분인 Saarland 대학의 Reinhard Wilhelm 교수는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 시간적 올바름을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Timing Analysis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특히 Wilhelm 교수의 연구실에서 출발한 AbsInt 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Timing Analysis 도구는 Airbus 380 시스템의 타이밍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우리 컴퓨터쟁이들도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수 있게 하였다.

Wilhelm 교수는 이러한 Timing Analysis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적뿐만 아니라 Shape analysis, Program flow analysis, Attribute grammar를 포함한 다양한 컴파일러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하였다. 특히 컴파일러 분야의 교과 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mpiler Design: Theory, Construction, Generation" 제목의 책을 집필하여 이 분야의 중요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책을 집필 또는 편집하였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석박사 학생을 배출 하였다. 이러한 모든 연구/교육 업적의 결과로 Wilhelm 교수는 2002년 ACM Fellow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Wilhelm 교수를 이야기할 때 꼭 짚고가야 하는 부분은 Dagstuhl에 관한 내용이다. Dagstuhl은 독일 내에 있으면서 일년 내내 컴퓨터 분야의 세미나, 워크샵을 개최하는 장소로서 우리 분야의 연구자들이 비용적인 부담없이 같이 모여 연구 및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하루에 40 유로 정도로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언제든지 연구자들이 어울려 이야기할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우리 분야 연구자들의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Wilhelm 교수는 이 Dagstuhl의 Scientific Director로서 개최할 세미나/워크샵 결정과 같은 큰 부분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써 왔다. 예를 들어 세미나/워크샵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서로 모두 잘 알게 하려는 배려로 매 끼 식사 때 마다 좌석을 지정하여 매번 다른 사람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도에는 항상 새로운 화가의 그림이, 현관에는 세미나/워크샵에 참석한 연구자들이 짬을 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가, 식당에는 대화의 촉매인 포도주가 항상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이 Distinguished lecture에 동참하는 여러 학생분들도 Dagstuhl에서 Wilhelm 교수의 "고상한" 취향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있기를 희망하며 Wilhelm 교수의 소개를 마친다.

민상렬, 2008년 10월